

청소년의 자아 개념 ·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 및 비행간의 상호관계

김 하연 · 오 경자 · 윤 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에 있어 또래집단 역할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고등학교 1,2학년인 남학생 356명과 비행청소년 125명을 대상으로 자아 개념과 또래집단의 비행에 대한 동조성과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성을 측정하였으며, 일반청소년들의 비행정도를 알아보고자 숨은 비행 정도를 조사하였다. 일반집단에서는 학업에 대한 자아 개념과 부모관계 자아 개념이 낮을수록, 또래관계 자아 개념이 높을수록 또래집단의 비행에 대한 동조는 높아지며, 이 가운데 학업 자아 개념은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와 부적으로, 또래관계 자아 개념은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 비행집단의 경우에는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 개념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업 자아 개념과 부모관계에 대한 자아 개념이 낮을수록 비행에 대한 동조는 높아졌다.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에 있어서 비행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동조성향이 높았으나, 비행에 대한 동조와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는 일반집단에서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은 비행행동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자아 개념의 차원들이 상호작용하여 비행동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 개념 단일 차원의 효과보다는 상호작용 효과로 비행동조성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청소년 비행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성장하는 선상에 있기 때문에 개선과 발전의 가능성이 풍부하며, 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범죄 문제의 양적 질적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청소년 비행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소년비행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살인, 강

도, 강간 등 강력범은 1986년 5,178건, 1988년 4,771건이었으나 1989년 5,588건으로 그 빈도수의 증가는 물론 질적 측면에서도 흉포화되어 가고 있으며, 비행의 흉포화와 더불어 근래 청소년 비행의 특징가운데 하나로 청소년 비행의 집단화 경향을 들 수 있다. 지난 10년간 공범의 조별추세를 보면 2인조는 131%, 5내지 10인조는 235-26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청소년대책위원회, 1985). 이렇게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어울려 공동으로 저지르

는 비행이 증가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사실에서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과 모범이 되고,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인간의 사회 및 성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또래집단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아동이나 성인에 비하여 또래집단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된다. 따라서 동조성을 청소년기의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Constanzo & Shaw, 1966).

한편, Kaplan(1980)은 자아 개념이 낮은 청소년은 비행행동에 보다 쉽게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비행행동이 자아—증진의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의 대안적인 행동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급우나 친구와 같은 집단성원으로부터의 인정은 자아 개념이 낮은 청소년에게 자아—증진의 기능을 제공하게 되므로 자아 개념이 낮은 청소년들은 더욱 또래집단에 동조하게 되며 특히 비행에 대한 동조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아 개념과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은 특히 청소년비행의 집단화 경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1. 자아 개념과 비행간의 관계

Shavelson(1976)에 의하면, 자아 개념은 환경으로부터 얻게되는 경험, 의미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귀인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의 자아에 대한 지각이다.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Shavelson, Hubner와 Stanton(1976)은 자아 개념의 구조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학업에 대

한 자아 개념, 사회적 자아 개념, 정서적 자아 개념, 그리고 신체적 자아 개념이다. 이러한 자아 개념에 대한 다차원적인 견해는 이미 상당량의 경험적 지지를 얻어왔다(예, Markus & Wulf, 1987; Marsh와 Parker, 1984).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자아 개념의 다차원성에 대한 이론적 발달이 상당히 있어왔으나, 이와 같은 다차원성이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었다. 다만 초기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일반적 측정만이 있었을 뿐이다. 예를 들면, Kaplan(1975, 1980, 1982)은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비행행동에 개입할 소지를 마련하여 준다고 하였으며, 여러 연구들이 이러한 추론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예, Kaplan, Johnson과 Bailey, 1986; Leung과 Drasgow, 1986; Rosenberg와 Rosenberg, 1978).

기존의 지배적인 Kaplan의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간에는 관계가 없음을 밝힌 상반된 연구들도 상당히 많다(예, Bynner, O'Malley & Bachman, 1981; McCarthy & Hoge, 1984; Stanger, Chassin & Young, 1983; Wells & Rankin, 1983). 그러나 자아 개념의 개념화에 대한 이론적인 발달은 이러한 일관성없는 연구결과들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되었다.

비행에 관한 과거 연구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자아존중감 측정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들이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Leung과 Lau(1989)는 자아 개념의 다차원적 측정을 이용하여, 자아 개념과 비행행동간의 복잡한 관계를 밝혔다. 즉, 비행행동은 일반적인 자아존중감과는 관련이 없으나, 자아 개념의 다양한 차원과 의미있게 관련되어 있다. 비행은 학업에 대한 자아 개념 그리고 부모와 학교와의 관계와 부적으로 상관되어 있으며,

비행행동과 신체적 자아 개념간에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은 사회적 자아 개념과 정적인 상관이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비행간의 관계는 자아 개념을 구성하는 차원들 가운데 어느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2.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의 압력

또래의 압력, 즉 또래가 규정한 어떤 지침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압력은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 속성으로 여겨져 왔다.

또래에 대한 동조 성향에 있어서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로 Berndt(1979)와 Bixenstine, DeCorte와 Bixenstine(1976)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까운 친구로부터 다양한 반사회적 행위에 함께 가담하기를 요청받는 가상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3학년에서 12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실시하였다. 이 두 연구에서 동조 성향은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증가하였다. Berndt(1979)는 반사회적인 상황에 더하여 친사회적 그리고 중립적 행동에 있어 또래를 따르려는 자발성을 알아보았는데, 동조 성향에 있어 발달적 변화는 반사회적인 상황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다.

Brown, Clasen과 Eicher(1986)는 음주, 성관계, 파괴행위와 같은 불량행위에 대하여 지각된 사회적 압력과 자기보고된 불량행위와의 상관은 15-16세에서 가장 강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친구와 함께 시간 보내기, 이성교제와 같은 또래와의 정상적인 활동보다는) 불량행위에 있어서 지각된 또래 압력과 또래에 대한 동조성향이 자기보고된 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는, 또래는 전반적인 사회적 활동보다는 불량행위에의 개입에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연구자들은 반사회적인 딜레마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반응이, 연령과 성별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그들의 실제 행동에 대한 보고(예, 절도, 파괴행위)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반사회적인 상황에서 또래의 압력에 동조하는 성향이 강하며, 이러한 동조성향은 실제 행동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아 개념과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행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청소년이 자신의 평가를 낮추는 사회적 경험을 피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진시키려는 보상적인 행동이나 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Kaplan,1980).

좌절을 빈번히 경험하고, 부모와 학교로부터 거부된 청소년은 다른 준거집단에서의 인정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이 때 그들의 선택이 친구와 급우와 같은 또래집단이다. 이러한 새로운 준거집단에서 청소년은 그들이 학교와 가족으로부터 받아왔던 유사한 좌절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학교와 가족속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 유형을 거부하고, 또래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하여 대안적인 행동유형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행동 유형은 일반적으로 집단 성원들에 의해 인정되는 비행행동을 포함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이나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다른 준거집단에서 인정을 얻고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래집단에 동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래집단의 비행

에 대한 동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또래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자아 개념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Leung과 Lau (1989)는 비행의 결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 개념이나 신체적 자아 개념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검증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아 개념의 전반적인 측면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비행이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는 선행연구(Rosenberg & Rosenberg, 1978)에 의하면, 높은 신체적 능력과 사회적 자아 개념이 높은 빈도의 비행행동을 유도하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 개념의 각 차원이 또래집단의 비행에 대한 동조와 비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비행에 대한 동조성향이 실제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들에서 측정된 비행에 대한 동조성향은, 개인의 동조성향에 다른 요인들이 혼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친사회적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social desirability)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에 대한 동조는 순수하게 또래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또래의 압력에 의한 동조라고 볼 수 있는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동조성향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와 (동조성향에 개인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비행에 대한 동조를 측정하여 비행과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성향의 관계와 이 관계가 비행행동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공식적인 비행기록이 없는 일반 청소년들(일반집단)과 비행행위로 입건되어 소년감별소에 위탁중인 비행청소년(비행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들이 청소년 자신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함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을 따르려는 반응을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로 정의하여, 자아 개념의 각 차원과 동조성향간의 관계의 패턴이 일반집단과 비행집단에서 어떻게 달라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비행에 대한 동조와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두 집단간에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일반집단에 대한 조사는 서울 시내 4개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15.94세였다. 총 356명이 조사에 응하였으며, 미완성이거나 불성실한 응답자료 3부를 제외한 353명의 자료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비행집단으로는 서울 소년감별소에 위탁되어 있는 125명의 비행청소년들이 조사대상이 되었는데, 표집대상의 연령은 15-18세(평균 16.67세)였다. 일반청소년들과 학력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중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25명의 비행집단 자료는 일반집단 353명의 자료와 비교분석되었다.

측정도구

가. 자아 개념 측정

자아 개념은 학업,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자아 개념, 신체적 능력과 외모에 대한 자아 개념의 다섯 차원으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arsh(1983)가 Shavelson의 자아 개념의 위계적 모형(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 Shavelson & Bolus, 1982)에 근거하여, 자아 개념의 일곱가지 구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Self-Descriptive Questionnaire(SDQ)를 이용하였다. 각 차원들은 8문항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업에 관한 내용만 10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문항의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 중 하나에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의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에 표시한 응답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각 차원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부모관계에 대한 자아 개념: .88, 학업에 대한 자아 개념: .90,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 개념: .82,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아 개념: .80, 신체외모에 대한 자아 개념: .82였다.

나. 비행에 대한 동조 측정

친구가 절도, 음주, 흡연, 폭행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친구의 요청을 받은 그 소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응답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게 하였다.

또래집단의 비행에 대한 동조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은 글로 묘사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응답하게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림 좌절 검사(Picture-frustration Test)의 기법을 응용하여 만화와 같은 그림 8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하나하나의 그림

장면을 읽고, 자기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 속의 빈칸에다 기록하게 하여, 그 반응을 응답자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였다.

각 내용에 대한 응답내용을 다섯 범주로 구분하여 채점하였다. 채점방식은 적극적인 동조(예; 그래 하자. 좋아 같이 하자), 소극적인 동조(예; 글썄 그러지 뭐. 너희가 날 좀 도와주면 하겠어.), 동조 또는 거부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애매한 반응(예;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께 여쭙보고.), 그리고 소극적인 거부(예; 미안하지만 다음에 하자. 우리 다른거 하자.), 적극적인 거부(예; 나는 하기 싫어. 너희나 해. 난 상관안해.)로 구분하여 적극적인 동조에 5점, 적극적인 거부에 1점을 주었다. 이 척도에서 최고점은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에 대한 동조성이 높은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반응 내용은 본 연구자와 2명의 심리학 전공자에 의하여 채점되었으며, 전체 반응에 걸쳐 3명의 평정자가 산출한 점수의 평균을 각 피험자의 동조점수로 하였다. 세 평정자간의 일치도는 .96이었다.

다.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 측정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는 비행에 대한 동조 측정과 마찬가지로 5개의 만화와 같은 그림으로 상황을 묘사하여, 이에 대하여 반응하게 하였다. 각 내용은 운동경기, 친구들과의 모임, 과외활동 등에 대한 것들이며, 채점방식은 비행에 대한 동조 채점 방식과 동일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반응 내용에 대한 세명의 평정자간의 일치도는 .95였다.

라. 숨은 비행 측정

본 연구에서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불량행위소년들이 범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여 청소년비행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는, 좁은 의미

의 비행에는 포함될 수 없지만 넓은 의미의 비행개념에는 포함시킬 수 있는 음주, 흡연, 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성인이 범해도 기소될 수 있는 무거운 비행부터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행이 되는 사소한 비행까지 모두 포함하여 25가지의 비행항목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 항목들은 김준호(1990)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숨은 비행의 항목들을 참조하였다. 비행항목을 제시한 후 각 항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숨은 비행척도를 반응자의 비행빈도를 고려한 동간척도의 수준에서 측정하고자, 반응을 '없다', '한두번 있다', '서너번 있다', '많다'로 구분하여 '없다'에 1점 '많다'에 4점을 주었다.

결 과

[표-1] 각 응답자 집단별 자아 개념의 평균점수

자아 개념의 차원	일 반 집 단		비 행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부 모 관 계	28.27	6.68	28.59	6.86
학 업	29.72	7.76	26.31	6.13
또 래 관 계	27.52	5.42	27.65	4.49
신 체 능 력	26.88	5.89	29.19	4.32

[표-2] 자아 개념 차원들과 동조간의 상관

일 반 집 단	2	3	4	5	6
1. 부모관계 자아 개념	.3638***	.1885***	.1506**	-.1895***	-.0346
2. 학업 자아 개념		.1733***	.1102	-.2922***	-.1307**
3. 또래관계 자아 개념			.4628***	.1792***	.1822***
4. 신체능력 자아 개념				.1226*	.2366***
5. 비행에 대한 동조					.2515***
6. 중립행동에 대한 동조					

1. 자아 개념과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와의 관계

자아 개념의 각 차원들과 비행에 대한 동조,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일반집단과 비행집단에서의 자아 개념의 차원에 따른 평균치는 표 1에 그리고 자아 개념과 비행에 대한 동조,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간의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집단의 경우에는 부모관계와 학업에 대한 자아 개념은 비행에 대한 동조와 부적 상관이 있으며, 또래관계와 신체능력에 대한 자아 개념은 비행에 대한 동조와 정적 상관이 있다. 자아 개념과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와의 관계에서는 학업 자아 개념은 동조와 부적인 상관이, 또래관계와 신체능력에 대한 자아 개념은 정적인 상관이 있다.

비행 집단	2	3	4	5	6
1. 부모관계 자아 개념	.4805***	.0396	.0781	-.2925***	.1645
2. 학업 자아 개념		-.0923	-.1493	-.3874****	.0875
3. 또래관계 자아 개념			.3599***	.4604***	.0170
4. 신체능력 자아 개념				.0915	.0089
5. 비행에 대한 동조					.1095
6. 중립행동에 대한 동조					

* p < .05 ** p < .01 *** p < .001 **** p < .0001

비행집단에 있어서는 부모관계 자아 개념은 비행에 대한 동조와 부적 상관이 있으며, 또래관계와 신체능력에 대한 자아 개념은 비행동조와 정적 상관이 있다. 비행집단의 경우 자아 개념과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비행에 대한 동조와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간의 관계는 일반집단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비행집단에서는 두 행동유형에 대한 동조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에서 자아 개념과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와의 상관관계는 자아 개념의 차원에 따라 각각 달리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비행에 대한 동조, 중

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에 가장 영향을 주는 자아 개념 차원들의 상대적 중요성 및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자아 개념의 차원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소거법(stepwise)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집단의 경우에는 학업 자아 개념이 낮을수록, 또래관계 자아 개념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관계 자아 개념이 낮을수록 비행에 대한 동조는 높았다. 또한 신체능력에 대한 자아 개념이 높을수록, 학업 자아 개념이 낮을수록, 또래관계 자아 개념이 높을수록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과 표 4].

비행집단에 있어서는 또래관계 자아 개념이 높을

[표-3] 일반집단: 비행에 대한 동조와 자아 개념의 중다회귀분석

자아 개념의 차원	중다상관	R ²	Adjusted R ²	F값
학업 자아 개념	.296	.088	.085	32.835****
또래관계 자아 개념	.377	.142	.137	28.209****
부모관계 자아 개념	.393	.154	.147	20.601****

**** p < .0001

[표-4] 일반집단: 중립행동에 대한 동조와 자아 개념의 중다회귀분석

자아 개념의 차원	중다상관	R ²	Adjusted R ²	F값
신체능력 자아 개념	.236	.056	.053	20.079****
학업 자아 개념	.283	.080	.075	14.771****
또래관계 자아 개념	.301	.090	.082	11.223****

**** p < .0001

[표-5] 비행집단: 비행에 대한 동조와 자아 개념의 중다회귀분석

자아 개념의 차원	중다상관	R ²	Adjusted R ²	F값
또래관계 자아 개념	.462	.214	.207	32.348****
학업 자아 개념	.578	.334	.322	29.539****
부모관계 자아 개념	.600	.360	.344	21.961****

**** p < .0001

수록 그리고 학업 자아 개념과 부모관계 자아 개념이 낮을수록 비행에 대한 동조는 높았다[표 5].

자아 개념이 비행에 대한 동조에 대해 갖은 전체 설명력은 일반집단에서는 15.4%였으나, 비행집단에서는 36%였다. 즉 비행에 대한 동조에 대해 자아 개념이 가지는 설명력은 비행집단의 경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와 비행행동과의 관계

일반집단과 비행집단이 또래집단에 동조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비행에 대한 동조와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에 대하여 각기 두 집단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비행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하여 비행에 대한 동조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t = -7.14, p < .001$),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도 유의미하게 높았다($t = -7.45, p < .001$)[표 6]. 이 결과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비행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하여 동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와 비행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동조를 비행행동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하

[표-6] 또래집단에서의 동조에 대한 집단별 평균점수

	비행에 대한 동조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
일반 집단	18.43(6.25)	16.52(4.26)
비행 집단	23.20(6.89)	19.83(4.31)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이다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행동조가 숨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R^2 = .402, F(1,340) = 230.346, p < .0001$)과 중립행동동조가 숨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R^2 = .066, F(1,340) = 24.245, p < .0001$)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전반적인 또래집단에 대한 높은 동조성향이 비행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비행집단에서는 숨은 비행이 측정되지 않아 일반집단과 유사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동조성향이 비행과 관계가 있으며, 비행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높은 동조성향을 나타내고 있어, 동조성향

이 높으면 비행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3. 비행행동에 대한 자아 개념과 비행에 대한 동조와의 관계

일반집단에서 자아 개념과 비행에 대한 동조와의 관계 그리고 비행에 대한 동조와 비행행동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두 변인간의 관계가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네 차원의 자아 개념을 모두

비행에 대한 원인변인으로 볼 때, 자아 개념이 비행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인지 아니면 비행동조 성향에 매개되어 비행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각 자아 개념의 차원과 비행동조성향 및 비행 행동에 대한 관계를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semipartial r^2 값에 의해 검증하였다.

자아 개념 차원들에 대해 sr^2 값을 계산한 결과, 부모관계에 대한 자아 개념 $F(1,340)=8.534$, $p<.01$, 학업에 대한 자아 개념 $F(1,340)=38.60$, $p<.01$ 로 나타나 이 두 차원의 자아 개념은 숨은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또래관계 자아 개념, 신체능력 자아 개념에 대한 sr^2 의 값들은 유의미하지 않아, 이 두 차원의 자아 개념은 비행동조성향에 매개되어 숨은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또래 관계 자아 개념이나 신체능력에 대한 자아 개념이 높은 청소년들은 비행에 대한 동조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비행행동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비행동조성에 대한 자아 개념 차원들간의 상호작용 효과

자아 개념의 한 차원이 비행동조성에 대해서 가지는 효과의 질과 양이 다른 차원의 자아 개념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행동조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차원과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차원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자아 개념 변인은 사실상 연속변인이지만,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를 범주화하였다. 즉 자아 개념의 각 차원마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자아 개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집단의 경우에 학업과 또래관계 자아 개념의 상호작용 효과 $[F(2,340)= 4.50$, $p<.05]$, 부모관계

와 또래관계 자아 개념의 상호작용 효과 $[F(2,340)= 5.33$, $p<.01]$ 는 유의하였다. 뿐만아니라 학업과 신체능력에 대한 자아 개념의 상호작용 효과 $[F(2,340)=8.73$, $p<.01]$, 학업과 부모관계 자아 개념의 상호작용 효과 $[F(2,340)= 6.18$, $p<.01]$ 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집단에서는 비행동조에 정적/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아 개념의 차원들이 각기 상호작용하여 비행에 대한 동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비행집단에서도 일반집단과 마찬가지로 자아 개념의 차원에 따른 평균값을 기준으로하여, 자아 개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분류하였다. 비행집단에서 비행동조에 대한 자아 개념 차원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관계와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 개념의 상호작용 효과만이 유의하였다 $[F(2,119)=3.996$, $p<.05]$ [표 8].

일반집단과 비행집단에서 공통적인 결과는, 비행에 대한 동조에 대한 부모관계와 또래관계 자아 개념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점이다. 따라서 부모관계 자아 개념이 비행동조에 미치는 영향은 또래관계 자아 개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논 의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들과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두 집단에 대해 자아 개념과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들은 일반집단과 비행집단에서 양상을 달리하고 있는 점이 있어, 본 논의에서는 두 집단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 개념과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 그리고 비행 행동간의 관계에 대하여 일반집단과 비행집단에서

[표-7] 일반집단: 자아 개념 차원들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비행에 대한 동조의 평균

H 자아 개념이 높은 집단
L 자아 개념이 낮은 집단

자아 개념 차원들간의 조합

1. 학 업-또래관계 자아 개념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학 업 H - 또래관계 H	17.94	5.70	101
학 업 H - 또래관계 L	16.19	5.56	91
학 업 L - 또래관계 H	21.46	6.66	78
학 업 L - 또래관계 L	18.61	6.15	82
2. 부모관계-또래관계 자아 개념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부모관계 H - 또래관계 H	18.60	5.82	115
부모관계 H - 또래관계 L	16.95	6.19	88
부모관계 L - 또래관계 H	21.02	6.90	66
부모관계 L - 또래관계 L	17.70	5.77	83
3. 부모관계-신체능력 자아 개념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학 업 H - 신체능력 H	17.48	5.68	111
학 업 H - 신체능력 L	16.73	5.88	80
학 업 L - 신체능력 H	21.84	6.36	82
학 업 L - 신체능력 L	17.95	6.03	79
4. 부모관계-신체능력 자아 개념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부모관계 H - 신체능력 H	18.48	5.92	127
부모관계 H - 신체능력 L	17.23	6.44	78
부모관계 L - 신체능력 H	20.96	6.80	67
부모관계 L - 신체능력 L	17.40	5.54	80
합 계	18.43	6.25	352

[표-8] 비행집단: 자아 개념 차원들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비행에 대한 동조의 평균

H 자아 개념이 높은 집단
L 자아 개념이 낮은 집단

자아 개념 차원들간의 조합

부모관계 - 또래관계 자아 개념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부모관계 H - 또래관계 H	25.46	5.55	26
부모관계 H - 또래관계 L	19.19	6.58	36
부모관계 L - 또래관계 H	25.67	7.36	39
부모관계 L - 또래관계 L	22.75	5.04	24
합 계	23.20	6.89	125

나타난 공통된 결과는, 부모관계 자아 개념은 비행 동조성에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다른 세 차원(즉, 학업, 또래관계, 그리고 신체능력)의 자아 개념이 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또래집단의 비행에 대한 동조와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간의 상관관계가 두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에서 측정된 비행행동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집단에서 측정된 비행행동은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까지의 비행을 모두 포함하는 숨은 비행의 빈도이며, 비행집단은 이미 비행을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서의 비행이 측정된 것이다. 숨은 비행의 빈도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한두번 이상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행동유형 가운데 경험율이 가장 높은 순위가 음란서적보기(88.4%), 돈내기 도박(80.7%), 귀가시간을 어기고 밤늦게 귀가(79.9%) 등의 순이었다. 한편 강간(0.8%), 환각제/본드 사용 경험(0.5%)은 극히 낮았다. 그리고 주거침입(15.3%), 패싸움(18.1%) 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집단의 비행성은 비행집단과 비교하면 약한 편이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을 비행성의 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달리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동조성을 보이고 있는데, 비행에 대한 동조성이 높은 것은 이미 그러한 비행행동이 비행청소년들에게 친숙한 행동이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 욕구에 억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순수한 동조로 볼 수 있는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도 역시 높은 것은 비행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하여 또래집단의 압력에 쉽게 영향을 받으며,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은 비행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두 행동 유형

에 대한 동조간의 상관관계가 두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집단의 비행성의 강도가 다르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일반집단은 숨은 비행에 그친 청소년들이고 비행집단은 숨은 비행을 넘어서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비행을 한 청소년들이다. 따라서 숨은 비행에는 비행에 대한 동조와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가 상호 관련되어 영향을 주지만, 숨은 비행에서 더 진전된 비행에는 두 동조성향이 상호 관련성을 갖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숨은 비행에서 더 진전된 “범법행위로서의 비행”에 이르는 과정에는 본 연구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여러 변인들이 영향을 주겠지만, 비행동조와 중립행동에 대한 동조간의 상관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이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Kaplan(1980)의 이론과 자아 개념과 비행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Leung과 Lau(1989)가 자아 개념과 비행과의 관계는 자아 개념의 차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Berndt(1979)와 Brown 등(1986)이 반사회적인 압력에 대한 동조가 실제 행동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주장한 점에 더하여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와 비행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자아 개념이 동조성향을 통하여 비행행동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은 비행행동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각 차원의 자아 개념은 단일 경로를 통하여 비행 동조성에 영향을 주지만 차원들이 상호작용하여 비행동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비행동조성에 대한 자아 개념의 단일 차원의 효과보다는 상호작용 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일반집단의 경우에는 비행동조성에 정적 또는 부적으로 효과를

가지는 차원들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비행집단에서는 부모관계와 또래관계 자아 개념의 상호작용이 비행동조성에 미치는 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자아 개념의 상호작용에 따른 비행동조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비행집단은 또래관계 자아 개념이 높은 집단에서 일관성있게 비행동조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행집단의 경우에 또래관계 자아 개념이 또래집단의 독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비행집단의 또래관계 자아 개념은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는 것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리라 여겨진다. 또래관계 자아 개념은 사회적 기술이나 사회적인 능력과 관계된 것인데 비행집단의 경우에는 친구교제 범위를 좁혀서 비행성향이 높은 청소년들끼리만 어울리고, 그러한 친구들과 함께 하는 범위내에서 높은 또래관계 자아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높은 또래관계 자아 개념은 “비행동조의 결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래관계 - 비행동조 - 비행, 이 세 변인이 순환하면서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진 자아 개념과 청소년기의 한가지 특성인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 그리고 비행과의 관계를 다룸으로써,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비행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공동비행은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세 변인간의 관계는 청소년비행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후속연구를 고려

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아 개념만을 측정하였는데,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또래집단 역할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측정을 통하여, 쉽게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는데 관련되는 변인들과 변인들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비행행위로 인해 법적 처분을 받지 않는 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한두가지의 비행행동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상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숨은 비행의 빈도를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데, 이들이 모두 위법한 행동으로서 비행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비행에 대한 동조와 독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간의 상관이 비행집단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숨은 비행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의 비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후속 연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있는 인문계 주간고등학교 1,2학년생과 소년감별소에 위탁되어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변인에 대하여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관계 등을 통제한 보다 엄격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 재은과 김 태련(1980). 그림좌절검사(Picture-

- frustration Test)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 준호(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 청소년대책위원회(1985). 청소년백서.
- Berndt, T.J.(1979). Developmental change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06-616.
- Bixenstine, V.E., DeCorte, M.S., & Bixenstine, B.A.(1976). Conformity to peer-sponsored misconduct at four grade levels. *Developmental Psychology*, 12, 226-236.
- Brown, B.B., Clasen, D.R., & Eicher, S.A.(1986).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21-530.
- Bynner, J.M., O'Malley, P.M., and Bachman, J.G.(1981). Self-esteem and delinquent revisite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407-444.
- Constanzo, P.R., & Shaw, M.E.(1966). Conformity as a function of age level. *Child Development*, 37, 967-975.
- Kaplan, H.B.(1975). *Self-Attitudes and Deviant Behavior*. Goodyear, Santa Monica, CA.
- Kaplan, H.B.(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Academic Press, New York.
- Kaplan, H.B.(1982). Self-attitudes and deviant behavior: New direction for theory and research. *Youth Society*, 14, 185-211.
- Kaplan, H.B., Johnson, R.J., and Bailey, C.A.(1986). Self-rejection and the explanation of deviance: Refinement and the elaboration of latent structur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 110-128.
- Leung, K., and Drasgow, F.(1986).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delinquent behavior in three ethnic groups: An application of item response theor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151-167.
- Leung, K., and Lau, S.(1989). Effect of self-concept and perceived disapproval of delinquent behavior in school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345-359.
- Markus, H., and Wurf, E.(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 Marsh, H.W., Parker, J.W.(1984). Determinants of student self-concept: Is it better to be a relatively large fish in a small pond even if you don't learn to swim as wel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213-231.
- Marsh, H.W., Relich, J.D., and Smith, I.D.(1983). Self-concept; The construct validity of interpretations based upon the SDQ.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73-187.
- McCarthy, J.D., and Hoge, D.R.(1984). The dynamics of self-esteem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396-410.
- Pearl, R., Bryan, T., & Herzog, A.(1990). Resisting or acquiescing to peer pressure to engage in misconduct: Adolescent's expectations of probable consequ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43-55.
- Rosenberg, F.R., and Rosenberg, M.(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79-291.
- Shavelson, R.J., and Bolus, R.(1982).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3-17.
- Shavelson, R.J., Hubner, J.J., and Stanton, G.C.(1976). Self-concepts: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 407-411.
- Stanger, S. F., Chassin, L., & Young, R. D.(1983). Determinants of self-esteem among labeled adolescent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3-10.
- Wells, L.E., and Rankin, J.H.(1983). Self-concept as a mediating factor in delinquenc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11-22.

Abstract

A Study of interrelation between self-concept, conformity to peer group and delinquency

HaYeon Kim, KyungJa Oh and Gene Yoon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ole of peer group in juvenile delinquency. 356 boys in senior high school first or second grade (Normal Group) and 125 juvenile delinquent boys in the detention center (Delinquent Group) were given a self-report questionnaire on self-concept in four areas (academic ability, physical ability,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peers). They were also asked respond to hypothetical situations which depicted peers urging a boy to perform either delinquent or neutral behavior. The Normal Group were also given a questionnaire on the self-report frequency of 25 delinquent acts. In the Normal Group, poor academic self-concept and poor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positive self-concept with regard to relationship with peers were related to high conformity to delinquent behavior which was related to high frequency of delinquent acts.

In the Delinquent Group, more positive self-concept with regard to relationship with peers and poor academic self-concept, poor relationship with parents were related to conformity to delinquent behavi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conformity to neutral behavior was significant in the Normal Group but not in the Delinquent Group. The Delinquent Group was higher in conformity to peer group than the Normal Group but the correlation between conformity to delinquent behavior and conformity to neutral behavior was significant only for the Normal Group.

Various dimensions of self-concept appear to interact with one other to influence conformity to delinquent behavior; thus in evaluating the effect of self-concept on conformity, the possibility of interaction between dimensions needs to be considered. The result are discussed in terms of differences between normal group and delinquent group in the pattern of interrelationship among self-concept, conformity to peer group and delinquent behaviors.